



군산시·김천시농업기술센터, 고향사랑 상호 기부

군산시·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양 기관 104명 1,026만 원이 동참하였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양 도시 간 농수특산물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계기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그동안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자매도시의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채원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시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역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으며 행사를 통해 양 도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국제관광인포럼, 협약·팸투어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과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회장 유진룡)은 지난 5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의 팸투어를 진행했다. 협약식에서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유진룡 국제관광인포럼 회장과 선운숙 순창발효관광재단의 대표가 관광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콘텐츠 개발 협력 사업 및 모범 사례의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진행된 팸투어에는 유진룡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17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강천산군립공원, 발효테마파크, 강천힐링스과 등 순창군의 주요 관광 명소를 답사하고, 발효문화 체험, 유기 만들기 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고추장인숙마을에서 고추장, 떡볶이, 인절미 만들기 등 발효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튿날은 강천산 군립공원을 탐방, 강천힐링스과에서 디박스 축육을 체험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이번 팸투어에 한국 관광의 세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하고 있는 국제관광인포럼 임원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업무협약과 팸투어를 통해 순창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으며 순창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장수군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효상)는 지난 5일 장계 금덕저수지 둘레길 일원에서 식목일 기념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식목일을 맞아 지역 내 소중한 자연 환경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금덕저수지 둘레길'은 2022년 금덕고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통해 준공된 곳으로 수변 친수공간 및 기존 농로를 활용한 순환 산책로 조성, 주민참여 경관 농업 조성, 문화여가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돼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여가 공간이다. 이날 활동에는 지난 1월 신규 위촉된 제11기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낫, 갈, 곡, 톱 등으로 금덕저수지 둘레길의 죽은 나무 및 식물들을 제거하고 주변 나무와 풀 등의 성장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효상 위원장은 "이번 식목일 기념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은 새봄을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원들이 땀 흘리며 인근 환경을 개선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윤신근 원장, 전북대에 11억원 기부

2000년부터 기부, 선포식 현장서 1억원 추가 기부... 약정·기부금 17억원

윤신근 원장(윤신근박사동물병원장, 전북대 수의대 72학번)이 모교에 11억원을 기부했다고 8일 전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기부를 시작한 윤 원장은 매년 소정의 기금을 전북대에 보내왔다. 5일 열린 전북대 77억 원 발전기금 모금 선포식에서 4천만 원을 기부, 지금까지 총 10억 원의 기부를 완성한 것 이날 윤 원장은 선포식 현장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이렇게 매년 발전기금을 기부해 온 윤 원장은 2011년 5억 원을 약정해 2021년 완납했고, 그 해 또다시 5억 원을 약정해 매년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등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1억 원 상당의 동물 조직검사 및 출기세포 자가 수혈 장비도 기부했다. 그가 이렇게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고 약정한 금액이 17억 원에 달한다. 윤신근 원장은 "학창시절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모교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내가 있다"며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등의 부침 속에서도 발전기금은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이 밑거름이 돼 모교가 글로벌대학으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후배들 역시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신근 원장은 1985년부터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및 미래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사재를 털어 반려동물 사진촬영대회를 열고, '세계 애견대박과', '애견기르기', '진돗개', '풍산개', '오수개', '개를 무서워하는 수의사' 등의 저서를 펴내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영성 기자



남원시, 제2회 운봉고원 벚꽃축제 성료

남원시 심승지명당 운봉 탐천방에서는 지난 8일 운봉읍발전협의회 주관하에 '제2회 운봉고원 벚꽃축제'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500여 명의 주민과 상춘객이 참여한 가운데 운봉농악단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구수나눔잔치, 축하공연, 시민참여무대 등 다채로운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7일에는 지리산둘레길 1코스(행정사나무 숲~서림공원) 구간에서 벚꽃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완주한 참가자는 소정의 기념메달을 증정받았다. 심승지명당 운봉 벚꽃길은 탐천 제방을 따라 남원시 운봉읍에서 인월면까지 12km에 달하며, 운봉 벚꽃은 지리산 해발 500m 고원에 위치해 다른 지역보다 10일가량 늦은 4월 중순쯤 만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자봉센터, 2024년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2024 자원봉사대학은 지역사회 핵심 자원봉사 리더 양성과 자원봉사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6차로 운영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주신 수강생 분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보건소, 아토피 피부염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23일부터 상반기 아토피 피부염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총 3회 운영되며, 아토피 피부 관리법, 생활수칙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 및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대상은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문의는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39)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4회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 20일 풍남문화광장서 개최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4회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가 20일 오후 2시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는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방송(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의욕과 희망을 심어주고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행



북드림복지회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인권 캠페인, 품바·고고장구 등 공연, 행운권 추첨 및 선물 배부로 구성됐다. 주요 출연자로 가수 구재영, 이수정, 가연, 송희숙, 정순임, 이연, 정도현, 품바 개나리, 한국무용 김복순, 기타 연주 권다현, 대금 연주 이희구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1-6689, 010-7304-56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부안 슬지제빵소, 이웃돕기 성금·찜빵 전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슬지제빵소(대표 김중우)는 지난 5일 부안군청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과 찜빵 140박스(50만원 상당)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군 진서면 소재 슬지제빵소는 2000년 부안읍에서 슬지네 인흥찜빵으로 시작한 부안군 대표 맛집 명소로 김중우 대표가 3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슬지제빵소는 2013년부터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에 꾸준히 기탁 중이며, 2023년 4월부터 부안군의 취약계층을 위해 매일 찜빵세트 30박스를 정기기탁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타삭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한동일 관광복지국장, 김중우 슬지제빵소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중우 대표는 "최근 강남신세계백화점 팝업을 통해 슬지제빵소 청년들과 함께 부안군의 우수한 농산물로 만든 찜빵을 홍보하고 돌아왔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로컬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컴퓨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 활동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오는 17일부터 주 2회 10주간 운영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과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등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들은 치매안심센터 치유 텃밭정원과 치유농장을 방문해 △치유농업 △채소꽃다발과 액자 만들기 △팜파티 및 소감 나누기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자연과 교감하면 인지기능 개선과 심리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군, 어르신 위한 치주병예방교육 '호응'

순창군이 5월 21일까지 26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년기에는 구강 상태에 따라 젊은 층과 달리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당뇨, 치매와 같은 전신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군은 어르신들에게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구강 관리 방법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스스로 치아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바른 칫솔 방법, 틀니 및 임플란트관리법, 구강건강증 예방을 위한 입체조로 구성, 개인별 구강 상담을 통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고 평소 치아 관리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치주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과 불소 바니쉬 도포와 같은 전문 시술을 통해 충치를 방지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군, 제2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 20일 개최

장수군 계남면 축제추진위원회 및 계남면이 주최·주관하는 제2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가 오는 20일에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 각종 나물을 이용한 비빔밥만들기 퍼포먼스 △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자수, 리넨공예 등) △ 다육이 전시 △ 농산물 재료를 사용한 먹거리 장터 운영 △ 관광객 참여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장안산 일원 채취한 봄나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산나물(두릅, 고사리, 취나물, 달래, 미나리 등)과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은 할인 판매한다. 또 산나물 민화(피피)로 개장식 및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 활력을 더한 방침이다. 황경만 축제추진위원장은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장안산 봄나물 축제와 함께 장수 민간의 관광 개장식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